

CEO와 특&특 조승만 누리텔레콤 회장

“애국심 없이 한국서 기업하기 힘들다”

조승만 누리텔레콤 회장(사진)은 1992년 통신시스템 분야 엔지니어 경력...

부추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생산직 근로자 평균 연봉이 3000만원 수준인 데도 지방에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나주공장은 인력난에 애먹고 송도공장은 잔업수당에 골머리 해외수주로 실적 개선하겠다”

공략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통신 게임 바이오통 등 7개 계열사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수익모델을 보강해왔다.

누리텔레콤은 지난해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오랜만에 만난 조 회장은 “아정정 한 애국심이 없으면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했다.

조 회장은 내부 승진 인사를 통해 김영덕 대표와 각자 대표체제로 회사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본지에 게재 된 ‘실업급여 노린 취업 매꾸기, 인력난 중기 두 번 온다’(1월 24일자 1, 5면 참조)는 기사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직 조치다. 조 회장은 “회사 조직 원에게 매출 2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을 달성하면 미련 없이 은퇴하겠다고 시기를 못 박았다”며 “올해나 내년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성태 중소기업부 부장 mrhand@hankyung.com



이너큐어 ‘헬로셀 엑토인 올인원 에센스’

피부과 의사가 추천한 ‘가성비 甲’ 남성화장품

피부과 연구용 ‘엑토인’ 적용 가볍게 발라도 촉촉함 오래가 가격은 타 브랜드의 절반 수준 ‘외산에 빼앗긴 시장 적극 공략’



이봉근 이너큐어 대표가 ‘헬로셀 엑토인 올인원 에센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봉근 이너큐어 대표는 마케팅 전문가다. 지난해 화장품 기업 이너큐어를 설립하기 전까지 제일기획 등 광고-마케팅 분야에서 일했다.

이 대표는 “피부와 전문의로부터 성분을 추천받아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며 “다른 데마 브랜드와 비교해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합리적인 가격의 데마 화장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화장품 시장 ‘공략’ 이너큐어의 화장품 브랜드명은 ‘헬로셀’이다. 헬로셀에서 가장 최근에 선보인 제품은 남성용 화장품이다.

정했다. 이 대표는 “남성용 화장품 시장은 외국계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경쟁이 심한 여성용 화장품 시장과 다르게 한국 중소기업이 가격과 품질을 앞세워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성분 차별화 아이디어는 피부과 전문의에게서 얻었다. ‘엑토인’은 피부과 연구에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 국내 화장품 브랜드에선 쓰는 곳이 없었다.

이 대표는 “엑토인은 이집트 사막의 소금호수에서 사는 미생물에서 발견한 성분”이라며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뽑아내는 방어기제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개발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엑토인은 독일의 화장품 원료회사인 비툼에서 독점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연락이 닿았다.

◆태국 멕시코 필리핀 등 수출 헬로셀은 해외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 화장품’이 지

Table with 2 columns: Item, Value. Includes: 설립 (2019년 1월), 브랜드 (헬로셀), 주요 제품 (헬로셀 엑토인 올인원 에센스), 직원 수 (5명)

닌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오랜 기간 해외 주재원 생활을 하며 깨달았기 때문이다.

태국 멕시코 필리핀 등에 이미 제품을 수출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키자흐스탄에서도 위생허가를 받아 제품 수출을 앞두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의 데마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잡겠다는 게 헬로셀의 장기 목표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 ‘가성비’를 중시하게 생각하는 소비층과 해외 시장까지 고려해 가격대를 정했다”며 “가격대가 높은 데마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최소 마진으로 소비자 가격은 낮은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thebest@hankyung.com)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신종 코로나 확산에 ... 공기살균기 ‘붓물’

뉴스카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이 이어지면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데 고치지 않고 균을 없애주는 공기정정살균기를 출시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페달과 액추에이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오앤케이테크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와 공기정정살균기 납품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오앤케이테크가 개발한 ‘에코5’는 공



오앤케이테크 ‘에코5’ 등 세균 잡는 제품 잇따라 출시

기 중 부유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빨아들어 고온의 세라믹 챔버를 통과시킨 뒤 내보내는 원리다. 세라믹 챔버의 내부 온도는 약 200도로 마치 숯과 비슷한 구조로 제작됐다.

셋서 약 1600도 환경에서 세라믹 챔버를 생산하고 있다”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시험한 결과 30㎡ 크기의 챔버에서 30분 안에 바이러스의 98%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코비플라텍도 호흡기 감염 예방에 중점을 둔 공기정정살균기 ‘에어플라 3중(사진)을 내놨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기압 벌크 플라즈마 기술로 특허도 등록했다.

김성영 코비플라텍 대표는 “신에너지인 플라즈마를 통해 2차 감염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중 필터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벌크 플라즈마로 병원균을 살균한다”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moon@hankyung.com

NEW 새로 나왔어요

타파웨어, 크리스탈 그릇 세트



타파웨어 브랜드 크리오는 9월 ‘크리스탈 보울 세트’(사진)를 한정 출시했다. 다가오는 봄을 맞아 빨강 보라색 계열의 화사한 색상을 적용했다.

투명한 용기와 단순한 디자인으로 냉장고에서 꺼내 식탁 위에 바로 올려 놔도 테이블웨어로 손색없다. 가볍고 깨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했으며 밀폐력이 뛰어난 외부 공기와 수분을 차단해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잠복기 환자까지 진단

황교선 경희대 교수팀 기술 개발 나노바이오센서로 1시간내 진단

국내 연구진이 나노바이오센서를 활용해 잠복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까지 찾아낼 수 있는 진단기술을 개발했다.

황교선 경희대의대 교수팀은 9일 혈액 내 극미량 존재하는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는 나노바이오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엑스와이지플랫

폼은 올해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나노바이오센서가 최근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 소요시간이 짧은 것은 물론 잠복기 환자까지 진단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회사 측은 잠복기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바이러스도 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의 기자 dirn@hankyung.com

감성에 디지털을 입혀라

30년 경력의 국내 최고 전문가의 충격적 조언

오전정 지음 | 16,000원

조류가 바뀌면 어종이 바뀌고, 어종이 바뀌면 어선을 바꿔야 한다

“당신의 비즈니스는 어떤 어선을 준비하고 있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라 한다. 하지만 위험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놀릴 것인가 누릴 것인가. 당연히 우리의 답은 감성(감정)에 디지털을 입히는 방법으로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Digital Transformation

이전부터 혁신은 성공을 기다립니다. KMAC